마스터스, 관객 재입장 2회로 제한

입장권 부정 사용과 기념품 사재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칼을 빼 들었다.

13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마스터스를 주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은 올해부터 입장권 소지 관객의 하루 입장 회수를 2차례로 제한하기로 했다. 작년까지 입장권을 지닌 관객은 하루에 3차례 경기장을 들락날락할 수 있었다.

입장 회수 제한은 입장권 부정 사용과 기념품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3차례 드나들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입장권 1장으로 여러 명이 돌려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돌려 쓰는 걸 넘어 일부 관객은 이를 암표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전언이다.

또 대부분 관객은 기념품 상점에서 산 물건을 경기장 밖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에 가져다 놓고 다시 입장해 기념품 구매에 나선다. 인기 높은 마스터스 기념품을 사자마자 밖에서 파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재입장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물량이 적은 일부 기념품이 일찌감치 동이 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재입장 2회 제한 조치는 연습 라운드 때부터 적용된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르브론, 스포츠 비즈니스 영향력 가장 큰 선수"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미국)가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선수란 평가를 받았다.

12일 '서울신문' 에 따르면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날 팀과 선수, 브랜드, 에이전시 등이 스포츠 비즈니스에 얼마나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한 '2019년 스포츠 머니 인덱스(SMI) 순위' 를 발표했다. 전체 1위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차지했다. 나이키는 브랜드 가치 320억 달러, 수익 규모 333억 달러로 평가됐다. 그 뒤를 최근 6년 동안 슈퍼볼 하프타임 광고 스폰서를 맡은 펩시, 제임스가 따랐다.

구단으로는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4위로 맨 윗자리를 차지했다. NBA 골든스테이트가 그 다음이었다. 바르셀로나의 스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개인으로는 제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6위였고, 레이커스와 에이전트 회사 CAA, 버드와이저, 미국프로풋볼(NFL) 댈러스 카우보이스 순이었다.

여자 선수로는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테니스)가 105위, 아시아계 선수로는 다나카 마사히로(일본, 야구)가 92위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한편 르브론은 소속팀 LA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르브론은 지난 12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2018-2019 NBA 정규시즌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123-107로 승리한 후 "현실적으로 우리 팀의 플레이오프 자력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 이라며 "딜러가 카드를 다시 섞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잔여 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 "프로선수로서의 책임감 때문은 아니다." 라며 "어떤 경기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다. 모든 경기를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뛰면서 살아왔다. 어떤 결과를 얻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밝혔다.

"최지만, 탬파베이가 맞이한 뜻밖의 기쁨"

탬파베이 지역 언론이 시범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펼치고 있는 최지만(28, 탬파베이 레이즈)을 치켜세웠다.

14일 '마이데일리' 에 따르면 탬파베이 지역 언론 '템파베이 타임즈' 는 전날 메이저리그 개막을 2주 앞두고 탬파베이 레이즈 스프링캠프의 화두로 꼽혔던 사안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대 격전지인 1루 포지션의 최종 승자는 최지만으로 예측됐다.

최지만의 이번 시범경기 활약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13일 현재 10경기에 출전에 타율 .350(20타수 7안타) 1홈런 4타점 출루율 .517 장타율 .550의 수준급 타격을 펼쳤다. 여기에 수비에서도 1루수로 9경기 45이닝을 소화하며 단 한 개의 실책도 범하지 않았다.

탬파베이 타임즈는 "탬파베이가 이번 스프링캠프서 최지만의 활약이라는 뜻밖의 기쁨을 만나고 있다." 며 "(최지만은) 수비에서도 최선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는 경쟁자인 브랜든 로우, 얀디 디아즈를 넘어선 모양새다." 라고 호평했다.

최지만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로우는 10경기 타율 .448 2홈런의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최지만과 달리 수비에서 1루 외에 2루와 외야까지 소화가 가능한 선수다. 이번 봄에도 세 포지션을 번갈아가며 맡고 있지만 1루 수비력은 최지만이 낫다는 평가다. 1루와 3루 소화가 가능한 디아즈는 11경기 타율 .231 1홈런으로 부진하다.

탬파베이 타임즈는 탬파베이 1루 경쟁의 시너지 효과를 언급하며 최지만과 로우의 공생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았다. 이 매체는 우투수가 나왔을 때를 가정하며 "최지만과 로우 중 한 명이 지명타자를 맡으면 된다. 그러나 최지만이 수비에서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최지만이 1루, 로우가 2루 혹은 우익수를 보는 그림도 가능하다. 그만큼 선택지가 다양하다." 는 분석을 내놨다.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한인타운, 부에나팍, 플러튼, 라하브라, 세리토스, 얼바인, LA. OC 전지역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에이전트!
뉴스타에서 NEW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Office 213.385.4989
BRE# 02030376
Eric Kang 에릭 강
Cell 213.663.8544
erickang@newstarrealty.com
Realtor Associate at Beverly Hills Board of Realtor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CAR
한인타운 콘도 $46만 5천 HOT 방2 + 화2 약 980 sf. 대 약 41,000. SF 좋은 동네
한인타운 콘도 $57만 방2 +화2 약 1,120 sf. 대 약 9,000.SF 좋은 동네, 좋은 학군
부에나팍 콘도 $45만 8천 HOT 방3 +화2 건 약 1,270 sf 대 12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부에나팍 콘도 $58만 방2 +화3 건 약 1600 sf 대 약 2200 sf 조용하고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부에나팍 콘도 $62만 방3 +화2 건 약 1,640 sf 대 약 5800 sf 조용하고좋은동네
부에나팍 $61만 5천 방3 +화2 건 약 1,840 sf 대 약 6,6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플러튼 콘도 $39만 HOT 방2 +화2 약 1,15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군
플러튼 콘도 $40만 HOT 방2 +화2 약 1,25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군
플러튼 콘도 $59만 5천 방3 +화3 약 1,54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군
플러튼 하우스 $56만 HOT 방3 +화2, 약 1,270 s.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군
플러튼 하우스 $57만 5천 HOT 방3 +화2 약 1,800 sf 대 약 7,0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군
플러튼 하우스 $60만 방4+화3 건 약 1790 sf. 대 약 6,0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군
라하브라 콘도 $42만 HOT 방3 +화2 건 약 1,1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라하브라 하우스 $51만 방3 +화2 건 약 1120 sf. 대 약 6,200 sf. 좋은 동네
라하브라 하우스 $56만 HOT 방3 +화2 건 약 1700 sf 대 약 5,600 sf 좋은동네
세리토스 콘도 $54만 HOT 방3 +화3 건 약 1,530 sf. 좋은동네
세리토스 콘도 $65만 방3 +화4 건 약 1,850 sf. 좋은동네
세리토스 하우스 $67만 방3 +화2 건 약 1,500 sf. 대 약 5,300 sf. 좋은 동네
세리토스 하우스 $72만 HOT 방4 +화3 건 약 2,100 sf. 대 약 4,100 sf. 좋은 동네
세리토스 하우스 $84만 HOT 방4 +화3 건 약 2,080 sf. 대 약 6,400 sf. 좋은 동네
비지니스 매물
다운타운 메디칼 유니폼 홀세일
$738,000 인벤토리 포함 가격!
월 매출: 평균 $62,000 Net $12,000 이상
인벤토리 $450,000(수입원가)
20년된 비지니스
영어필요
가족 비지니스로 최고의 아이템 무한한 포텐셜
꼭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상 가 / 아 파 트 / 창 고 사 고 파 실 분 연 락 주 세 요 ! www.newstarrealty.com